

2015년 1분기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과 모델포트폴리오

Contents

- Why 글로벌 자산배분인가 ?
- 프로세스 : 차별화된 자산배분 및 펀드선정을 통한 가치창조
- 대우증권 House View
- 자산배분안 도출결과
- 모델포트폴리오
- 대우증권의 독자적 우수 펀드 선정프로세스 소개
- MP 편입펀드 소개
- 12 Type의 맞춤형 포트폴리오
- 모델포트폴리오 활용, 상품

[첨부]

1. 펀드 유니버스 성과비교
2.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안

KDB대우증권 상품전략위원회

[상품전략위원회]

상품전략위원회는 통일된 하우스 뷰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교하고 시의 적절한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현장에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리서치 및 전략, 운용 등 핵심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주요 부문의 부서장들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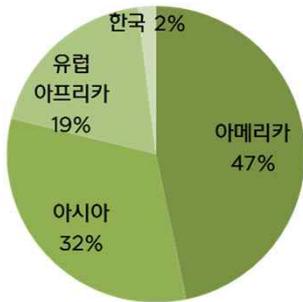
[참가위원]

상품개발운용본부장 김성호(Chief Product Officer), 상품개발실 김희주, 투자분석부 김학균, 이승우, 채권운용부 이두복, 파생상품영업부 명진훈, Wrap상품부 김분도, 신탁부 우승하, 연금사업추진부 노용우, 컨설팅지원부 김소정, 투자정보지원부 김성주, 마케팅부 박병찬, 리스크관리부 이재용. 기타 실무위원회는 상기부서 팀장들로 구성되며, 회의시 금융소비자보호부 및 WM사업추진부 팀장이 배석.

Why 글로벌자산배분인가 ?

왜 글로벌 투자인가? 한국 편중은 우물안 개구리

98%의 기회를 버리는 한국편중 투자



전세계 거래소 시가총액 비중
(국제거래소 협회, 15.2.25기준)

-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1.2조달러 수준이며, 이는 세계 주식시장시가총액 63.5조달러의 약 2%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채권발행잔고는 1.6조 달러로 전세계 채권발행잔고 89조 달러의 1.8%수준에 불과합니다.
- 한국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만 투자하여 98%의 기회를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내 자산배분만으론 한국 고유의 극단적 위험을 피할 수 없어

이머징마켓을 보면 극단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주가는 물론, 채권·부동산 등 모든 자산이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예를들어 최근 브라질은 경기침체와 외국인 자금이탈로 인해 주가와 채권가격, 그리고 환율가치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치적·경제적·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노출될 경우 주식과 채권 등 모든 자산이 동시에 하락하여, 국내 자산간에 분산투자 하더라도 큰 손실을 볼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주식·채권외 다양한 자산들이 있어 투자기회가 많습니다.

글로벌로 시각을 넓히면 투자대상이 확대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는 훌륭한 혁신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회사채 유통시장도 거래량이 많아 편하게 투자할 수 있죠. 또한 상업용 부동산이나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자산, 그리고 원유, 귀금속, 농산물 등 다양한 원자재에 대한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어 훨씬 많은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Why 글로벌자산배분인가 ?

왜 자산배분 인가? 승자가 없는 자산시장, 쪼개고 나눠라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자산을 쫓다가 매번 꼭지를 잡곤 합니다. 하지만 자산별·지역별로 고르게 분산하여 투자하면 변동성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박의 가능성은 줄지만 꿀피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아래 연도별 자산수익률 표에서 보시듯 한국주식 투자는 순위변동이 심한 반면 글로벌 자산배분은 꾸준히 중간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한국주식 53.96% | 부동산 38.80% | 이머징 주식 39.80% | 선진국 채권 10.40% | 이머징 주식 79.00% | 부동산 23.40% | 선진국 채권 6.20% | 부동산 23.70% | 선진국 주식 23.40% | 부동산 22.80% |
| 원자재 44.90% | 이머징 주식 32.60% | 원자재 36.20% | 한국채권 10.07% | 한국주식 49.65% | 한국주식 21.88% | 한국채권 5.46% | 이머징 주식 18.60% | 자산배분 3.30% | 한국채권 6.67% |
| 이머징 주식 34.50% | 선진국 주식 21.50% | 한국주식 32.25% | 이머징 채권 -7.90% | 선진국 주식 35.40% | 이머징 주식 19.20% | 부동산 1.70% | 선진국 주식 16.80% | 부동산 2.80% | 선진국 주식 4.70% |
| 자산배분 15.86% | 자산배분 15.14% | 이머징 채권 13.60% | 자산배분 -24.07% | 부동산 33.70% | 이머징 채권 15.40% | 원자재 0.50% | 이머징 채권 15.00% | 한국채권 2.25% | 선진국 채권 0.60% |
| 선진국 주식 11.40% | 이머징 채권 13.20% | 자산배분 16.46% | 한국주식 -40.73% | 자산배분 28.51% | 자산배분 13.70% | 이머징 채권 -1.90% | 자산배분 11.05% | 한국주식 0.72% | 자산배분 -0.23% |
| 부동산 10.40% | 선진국 채권 6.50% | 선진국 주식 12.20% | 원자재 -41.10% | 원자재 21.60% | 선진국 주식 13.20% | 자산배분 -2.48% | 한국주식 9.38% | 원자재 -0.80% | 이머징 주식 -1.80% |
| 이머징 채권 4.10% | 한국채권 5.89% | 선진국 채권 10.80% | 선진국 주식 -41.80% | 이머징 채권 21.00% | 원자재 12.10% | 선진국 주식 -6.90% | 한국채권 5.72% | 이머징 주식 -2.30% | 이머징 채권 -4.70% |
| 한국채권 0.72% | 한국주식 3.59% | 한국채권 2.88% | 부동산 -45.00% | 한국채권 4.36% | 한국채권 7.38% | 한국주식 -10.93% | 선진국 채권 2.30% | 선진국 채권 -4.00% | 한국주식 -4.76% |
| 선진국 채권 -6.40% | 원자재 0.90% | 부동산 -11.10% | 이머징 주식 -53.20% | 선진국 채권 2.50% | 선진국 채권 5.60% | 이머징 주식 -18.20% | 원자재 -0.10% | 이머징 채권 -8.50% | 원자재 -31.10% |

[Data 산출기준]

- 자산배분성과는 주식에 40%(선진국2, 이머징1, 한국1), 채권 40%(선진국2, 이머징1, 한국1), 대안자산에 20% (원자재1, 부동산 1)로 배분하여 산출
- 자산별 Index (선진주식 MSCI ACWI GR, 이머징주식 MSCI EM GR, 한국주식 KRX KOSPI Korea PR, 선진국채권 JPM GBI Broad TR, 이머징채권JPM GBI Global Composite TR, 한국채권 MKBP Composite, 원자재 S&P GSCI Enhanced Commodity TR, 부동산 FTSE EPRA/NAREITGlobal REIT TR)

Why 글로벌자산배분인가 ?

▶ 글로벌자산배분, 저금리 시대의 맘 편한 대안입니다

투자 시점별로 다르긴 하지만 10년전(04년)에 한국주식과 글로벌자산배분에 각각 1천만원을 투자했다면, 10년이 지난 현재 각각 연평균 11%와 9%를 달성했습니다.

자산배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종 수익에 이르는 과정은 많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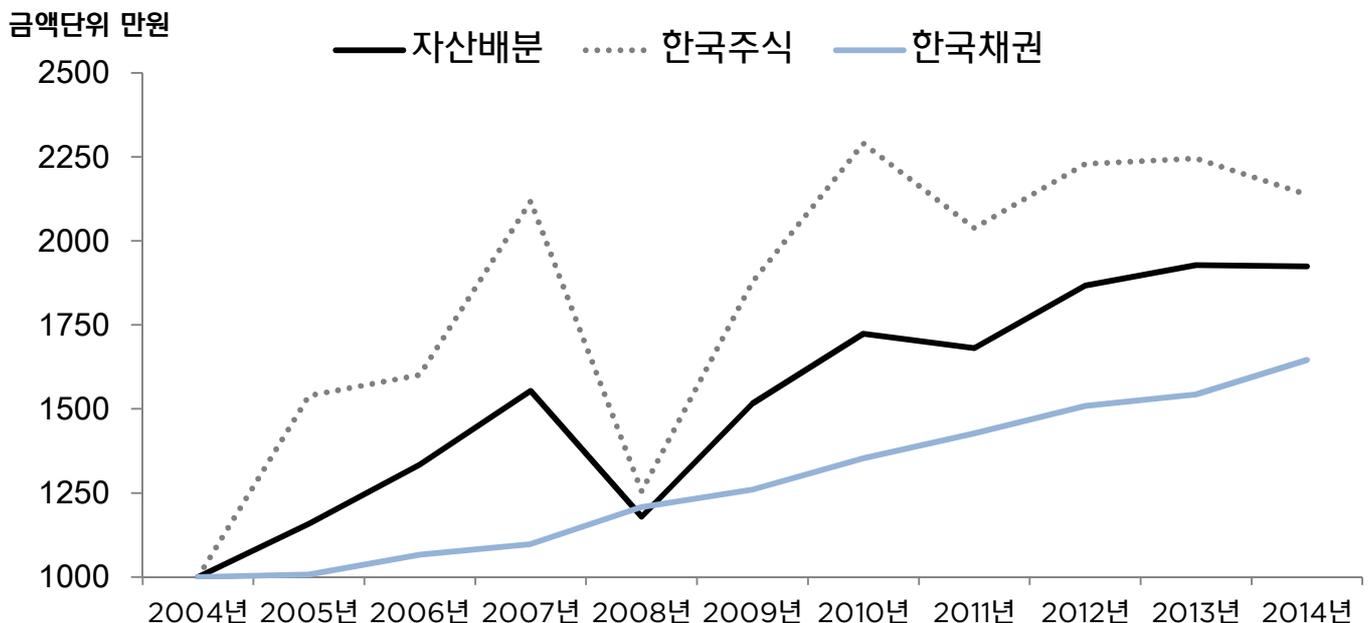
한국주식시장이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반면, **글로벌자산배분은 꾸준하게 성과를 누적해가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위험을 관리해 왔습니다.**

물론 채권투자의 성과도 과거 안정적이었지만 금리가 2%수준인 현시점에서는 투자매력이 낮습니다.

[글로벌자산배분, 한국주식, 한국채권에 10년간 1천만원 투자시 성과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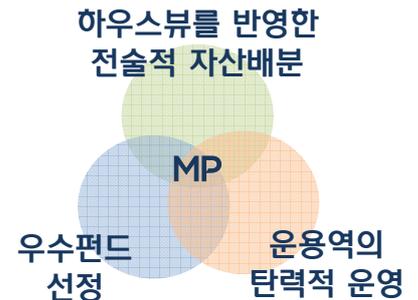
| 구분 | 한국주식 (KOSPI) | 글로벌 자산배분 | 한국채권 (매경BP종합) |
|-----------|--------------|----------|---------------|
| 만기금액 (세전) | 2,138만원 | 1,923만원 | 1,662원 |
| 연평균수익률 | 11.38% | 9.23% | 6.62% |

※글로벌 자산배분은 주식40%, 채권40%, 원자재 20%를 가정하여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제로 투자했을 때의 결과와 크게 다를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차별화된 자산배분 및 펀드선정을 통한 가치창조

전사적인 투자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리서치센터와 운용부서, 그리고 위험관리부서 등으로 구성된 상품전략위원회가 소집되며, 위원회에서 통일된 하우스 뷰를 도출하게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자산배분안이 결정되며, 우수한 펀드를 편입하여 모델포트폴리오(MP)가 완성됩니다.



전략적 자산배분 Strategic Asset Allocation

균형감있는 기본 자산배분안을 설정

- 과거 성과 및 향후 전망 외 국내 투자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벤치마크로서의 전략적 자산배분안을 결정

통일된 하우스 뷰 상품전략위원회 House View

상품전략위원회는 통일된 하우스뷰를 도출

- 리서치센터는 자산별·지역별 시장전망 및 우선순위를 결정
- 리서치 애널리스트 의견 뿐만 아니라 내외부 운용매니저의 운용노하우를 반영하여 최종 하우스뷰를 도출함

전술적 자산배분 Tactical Asset Allocation

편안한 운영이 되도록 과격한 핸들링은 없을 것

- 지역별, 국가별, 기타 하위자산별 우선순위 등을 반영하여 결정
-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과격한 핸들링의 자산배분이 아니라, 물 흐르듯 투자자들이 마음편히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배분

모델 포트폴리오 Model Portfolio

자산별·지역별 대표성을 지닌 펀드중심으로 편입자산을 결정

- ① '베타-알파전략'으로 구성 (베타펀드 70%, 알파펀드 30%)
- ② 투자편의성을 위해 펀드위주로 선정, ETF는 보조적 수단
- ③ 자산별·지역별로 대표하면서 당사만의 독자적 선정원칙에 따라 장기성고가 꾸준히 우수한 펀드 선정

MP 활용 및 상품화

PB가 참고해서 상담할 수 있는 대표 모델(MP)로 활용

- 맞춤형 용도 활용이 기본, Wrap과 신탁 등 상품투자가능
- Wrap, 신탁운용자의 운용권한 30%부여로 수익의 안정성과 초과수익가능성의 균형추구

House View

경제 전망

2015년 글로벌 경제는 전년보다 좋아진 3.5% 성장을 유지할 것 전망
 이머징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회복이 예상됨.

- 미국은 2008년 이후 지속된 부채 조정이 마무리되고, 유가하락에 따른 소비활성화 가능성으로 3%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유럽은 ECB의 보다 공격적인 통화정책과 유로화 약세 덕분에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최근 내수 부진에 따라 좀더 적극적인 정책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IMF의 전망과 달리 7% 성장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

세계 경제성장률 예상 (출처 IMF 단위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전세계 | 3.3 | 3.3 | 3.5 | 3.7 |
| 미국 | 2.2 | 2.4 | 3.6 | 3.3 |
| 유로존 | -0.5 | 0.8 | 1.2 | 1.4 |
| 일본 | 1.6 | 0.1 | 0.6 | 0.8 |
| 중국 | 7.8 | 7.4 | 6.8 | 6.3 |
| 인도 | 5.0 | 5.8 | 6.3 | 6.5 |
| 브라질 | 2.5 | 0.1 | 0.3 | 1.5 |
| 러시아 | 1.3 | 0.6 | -3.0 | -1.0 |
| 한국 | 3.0 | 3.5 | 3.7 | 3.0 |

■ 주의해야 할 글로벌 리스크 요인

- ① 미국 QE종료와 긴축 : 금리인상 시기 불확실성은 신흥국에 부정적 요인
- ②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 여타 유로존 주변국으로 확산될 위험
- ③ 신흥국 도미노 위기 : 러시아/브라질 경제 침체와 신흥국 자금유출 가능성

[자산별/지역별/국가별/업종별 투자의견과 우선 순위]

| | ← 우선순위 상 | 우선순위 하 → |
|------|---|----------|
| 자산군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식</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채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원자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REITs</div> </div> | |
| 주식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선진국증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이머징증시</div> </div> | |
| 지역별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북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유럽영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아시아태평양</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라틴</div> </div> | |
| 선진국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싱가포르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홍콩 호주 스페인 캐나다 </div> | |
| 이머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체코 폴란드 필리핀 터키 칠레 한국 태국 멕시코 남아공 말레이시아 중국 러시아 브라질 </div> | |
| GICS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경기소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IT</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헬스케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산업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필수소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소재</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금융</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유틸리티</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통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에너지</div> </div> | |
| 국채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이머징채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선진국채권</div> </div> | |
| 이머징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러시아 대만 중국 터키 헝가리 멕시코 말레이시아 폴란드 태국 한국 인도 체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div> | |
| 선진국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div> | |
| 원자재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귀금속</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농산물</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비철금속</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에너지</div> </div> | |

House View

주식 전망

지역을 막론하고 주식 자체의 매력도는 2014년보다 약해져

- 선진국의 경우 주가가 많이 올라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음 (6년간 지속상승)
- 미국의 통화정책이 완화에서 긴축 또는 중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

선진국 : 미국 > 유럽 > 일본 순 선호

- 미국 : 굳건한 펀더멘털과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 투자메리트 유지
- 유럽 : 공격적인 양적완화로 유동성은 양호, 다만 펀더멘털의 더딘 회복 부담
- 일본 : 강력한 아베노믹스 불구, 펀더멘털의 본격적인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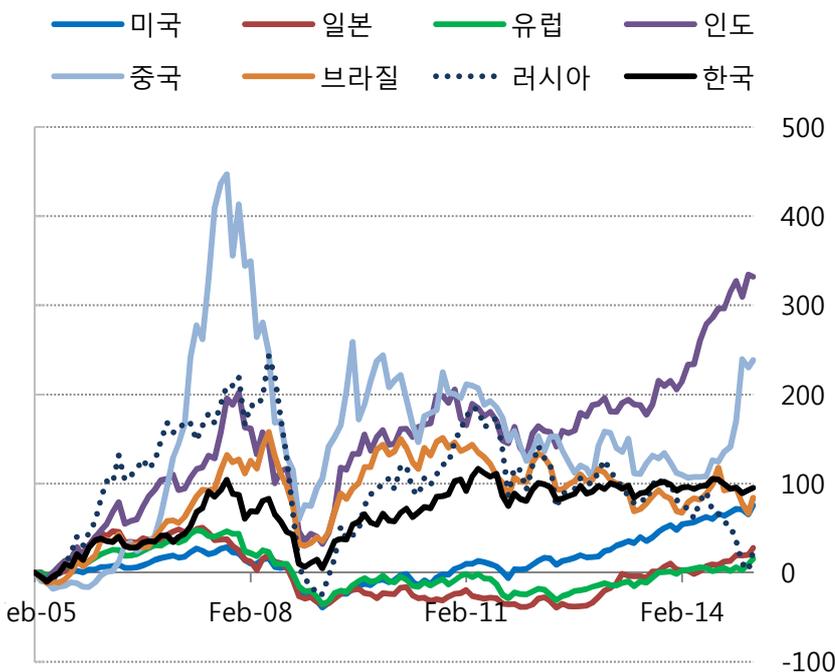
이머징 : 인도>중국>러시아>브라질 순 선호

- 인도 : 최근 물가상승률 5%로 하락, 모디노믹스의 핵심인 인프라투자 지속. 유가하락 최대수혜국
- 중국 : 우호적인 유동성 여건(시장 개방+금융완화 정책) vs 부진한 펀더멘털
- 브라질 : 원자재 약세에 따른 수출감소, 금융 긴축에 따른 내수경기 악화
- 러시아 : 저유가와 경제제재로 금융시장 불안 지속, 하지만 국가 디폴트 가능성은 낮아 반등 시도

한국 : 모멘텀 부재 , ‘매수 후 보유 Buy & Hold’가 아닌 ‘ 트레이딩 Trading’

- 박스권 장세의 연장선상에 머물러 있으나 PBR 1배인 1,850선 저가매수 유효
- 기업들의 배당 확대 흐름은 하방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

주요국 주가지수 10년 누적수익률 (%)



주요국 밸류에이션 등 (Bloomberg, 15.2.25기준)

| 국가 | PER | PBR | 배당수익률 |
|-----|------|-----|-------|
| 미국 | 18.9 | 2.9 | 1.93% |
| 일본 | 17.1 | 1.3 | 1.64% |
| 유럽 | 22.9 | 1.6 | 3.29% |
| 인도 | 20.4 | 3.1 | 1.40% |
| 중국 | 15.5 | 2.3 | 1.64% |
| 브라질 | 16.3 | 1.2 | 4.82% |
| 러시아 | 5.1 | 0.4 | 4.25% |
| 한국 | 17.0 | 1.0 | 1.06% |

※ 미국 S&P500, 일본 TOPIX, 유럽 Euro STOXX50, 인도 SENSEX
중국 CSI300, 브라질 BOVESPA, 러시아 RTS, 한국 KOSPI

House View

채권 전망

채권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완만한 금리상승을 예상함.

선진국 채권보다는 금리완화정책이 유지되는 이머징채권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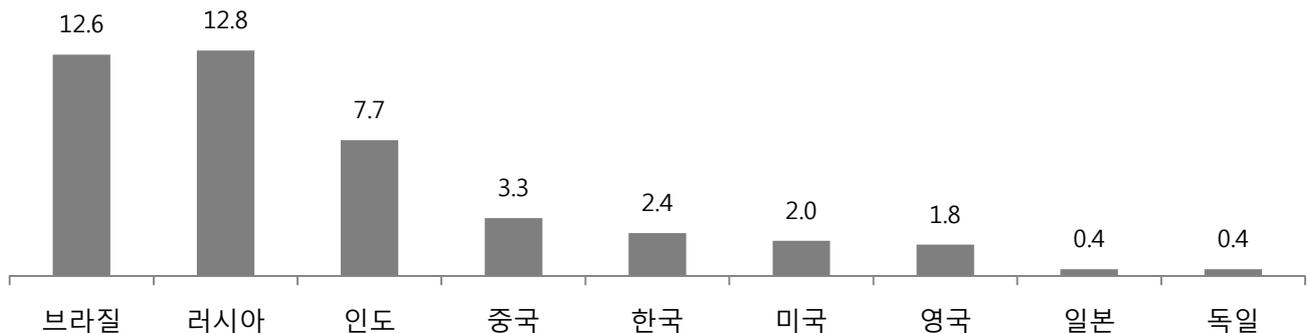
국채보다는 캐리가 높은 회사채가 매력적.

결론적으로 **이머징 투자등급 회사채를 달러나 안전통화로 투자하는 것이 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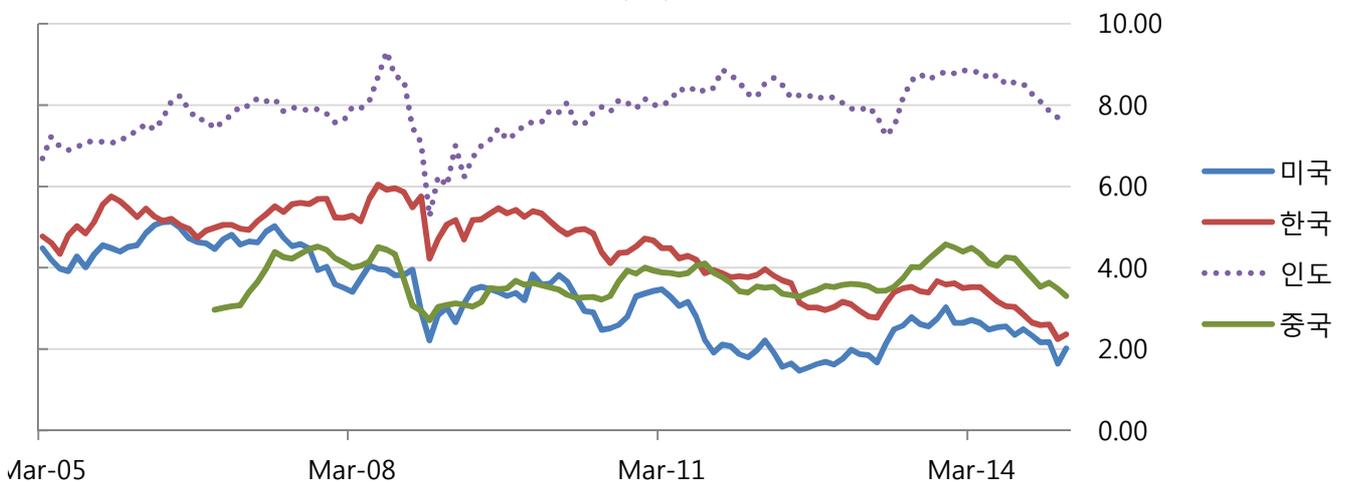
채권 투자매력도 비교

- ① 지역 : **이머징** VS 선진국 : 이머징채권의 캐리 매력적 (아래 그림 참고)
- ② 기간 : **중단기채권** VS 장기채권 : 금리상승기, 장기 보다는 중단기로 투자하는 것이 안전
- ③ 발행주체 : **회사채** VS 국채 : 우량등급 회사채가 매력적, 국채와의 스프레드 축소예상
- ④ 통화 : **달러** VS 현지통화 : 달러 매력적, 현지통화 변동성 높아 위험
- ⑤ 등급 : **투자등급** VS 투기등급(하이일드) : 투자등급이 매력, 투기등급채권의 캐리는 매력적
이나 에너지기업 디폴트 리스크 커져 조심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현황 (%) ※ Bloomberg . 2015년 2월 25일 기준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 10년간 추이 (%)



House View

대안자산

원자재 : 원유가격 40~60불 선 등락예상. 귀금속>농산물>비철금속>에너지 순 매력

- 원유 : 공급과잉 이슈지속과 단기급락에 따른 저가매수로 40~60달러 등락예상
- 귀금속 : 강달러 압박 예상되지만 실물 수요는 견조,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을 감안하면 강세 기대
- 농산물 : 전반적으로 양호한 작황, 반등 모멘텀 강하지 않음
- 비철금속 : 구리 등 과잉공급 상황 지속, 하지만 중국 통화완화 및 경기부양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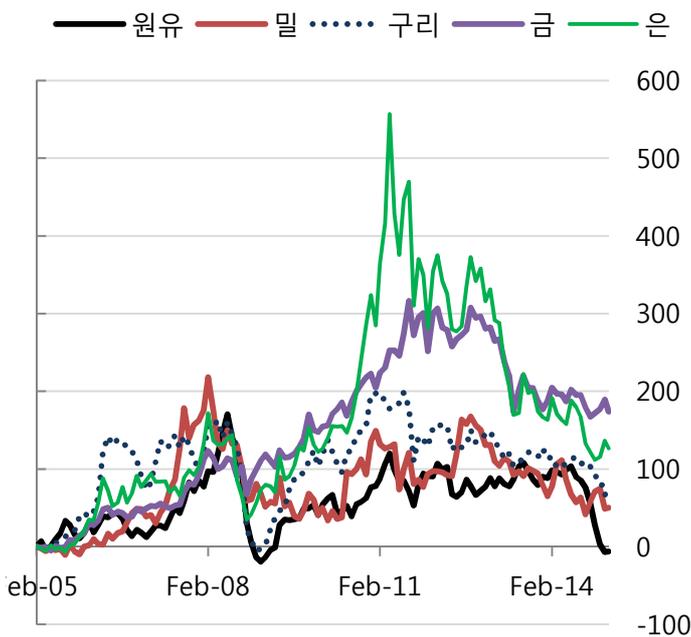
부동산 및 인프라 : 금리상승시 가격 조정 불가피

- 글로벌 리츠(부동산)와 인프라(고속도로, 항만, 수송인프라 등)는 최근년 금리하락에 따라 수익률이 급하게 상승한 상황. 배당매력은 유효하나 미국 금리상승시 가격조정 예상

절대수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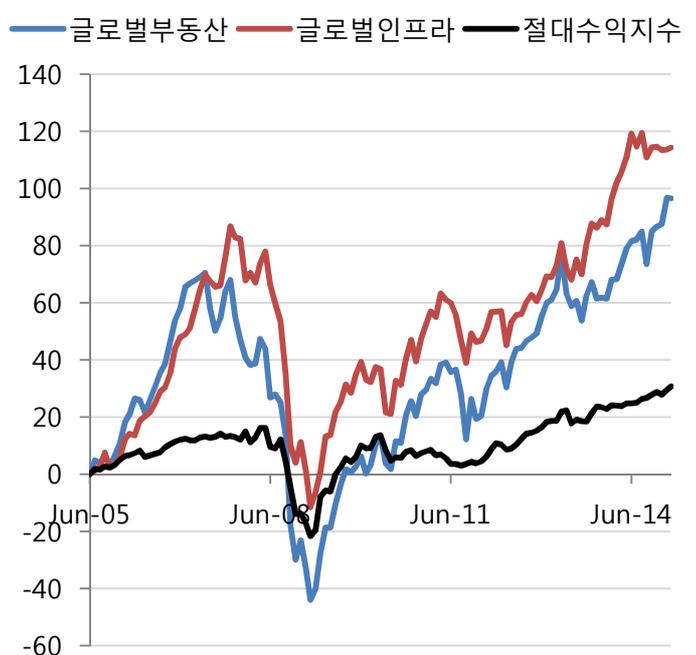
- 주식/채권/통화/원자재 등을 대상으로 상대가치전략과 방향성 투자 등을 실행.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절대수익전략을 추구하는 만큼 5%이상의 성과달성 기대함.

주요 원자재 10년 누적수익률 추이 (%)



※ 원유 (WTI 실물가격), 금 (런던시장 PM가격), 기타 원자재는 Generic 선물가격

부동산, 인프라, 절대수익지수 10년추이 (%)



※ 글로벌부동산 FTSE NAREIT TR, 글로벌인프라 S&P Global Infra TR, 절대수익지수 UBS Dynamic Alpha Strategy

기대수익률 6.14%의 House View를 반영한 자산배분안 도출

상품전략위원회는 주식 : 채권 : 대안자산의 기본 자산배분비율 4 : 4 : 2 에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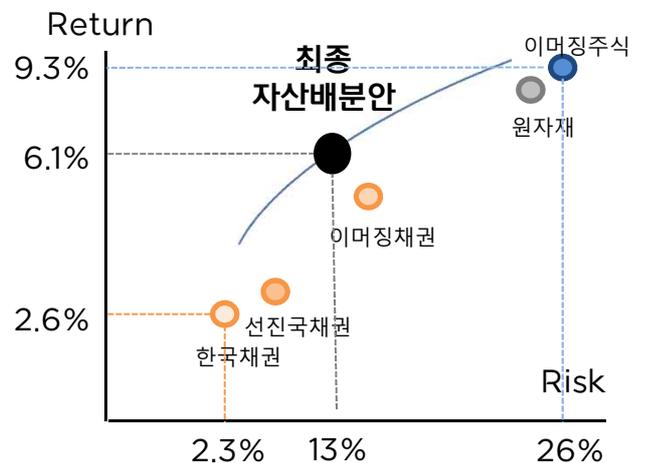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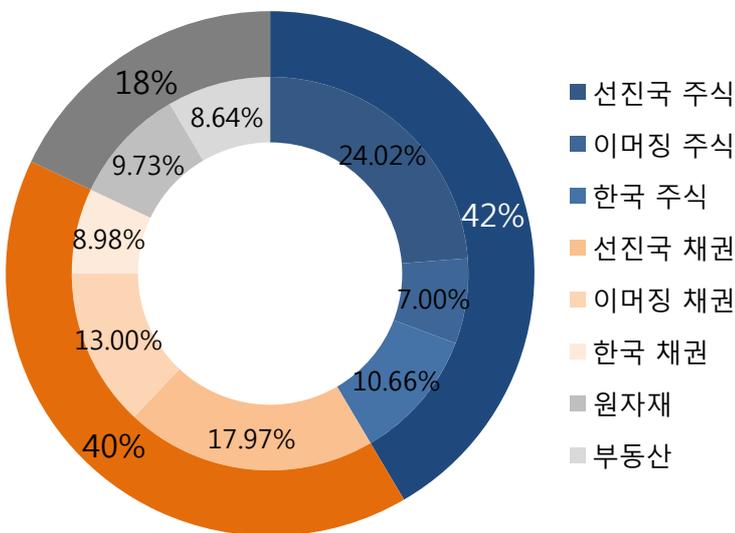
- 과거성과 및 향후 전망 외 투자자 행태 등을 고려하여, 균형감 있는 자산배분비율 도출

시장분석 후 하우스 뷰를 반영 (주식 확대, 채권 유지, 대안자산 축소)

- 주식내 투자우선순위는 선진국 > 한국 > 이머징,

- 채권은 이머징 > 선진국 > 한국, 대안자산은 원자재 > 부동산의 순서

최적 자산배분안 주식 42%, 채권 40%, 대안자산 18% 확정



| 자산 | 비중 (유요범위) | 하우스뷰 | 자산클래스 | 비중 | 기대수익률 | 변동성 |
|----------------|-------------|------|--------|--------|-------|-------|
| 주식 | 42% (35~45) | +4% | 선진국 주식 | 24.02% | 7.24% | 17.78 |
| | | -3% | 이머징 주식 | 7.00% | 9.31% | 26.06 |
| | | | 한국 주식 | 10.66% | 7.17% | 21.20 |
| 채권 | 40% (35~45) | -2% | 선진국 채권 | 17.97% | 3.34% | 6.77 |
| | | +3% | 이머징 채권 | 13.00% | 5.86% | 13.57 |
| | | -1% | 한국 채권 | 8.98% | 2.59% | 2.28 |
| 대안자산 | 18% (17~23) | | 원자재 | 9.73% | 7.26% | 24.49 |
| | | -1% | 부동산 | 8.64% | 7.94% | 23.77 |
| 전술적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 | | | 100% | 6.14% | 13.00 |

※참고 : 자산배분 모델은 블랙리터만모형(Black-Litterman)을 사용하였으며, 당시의 자산군별 전망값을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기대수익률을 결과값으로 도출, 기대수익률과 역사적 변동성을 이용하여 최적자산배분안을 만들고 중단기 하우스뷰를 반영하여 최종 전술적 자산배분안으로 완성. 과거 데이터만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CAPM방식의 한계를 극복.

최적 자산배분안을 투자가능한 모델포트폴리오로 제시

1 자산배분의 안정성과 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베타-알파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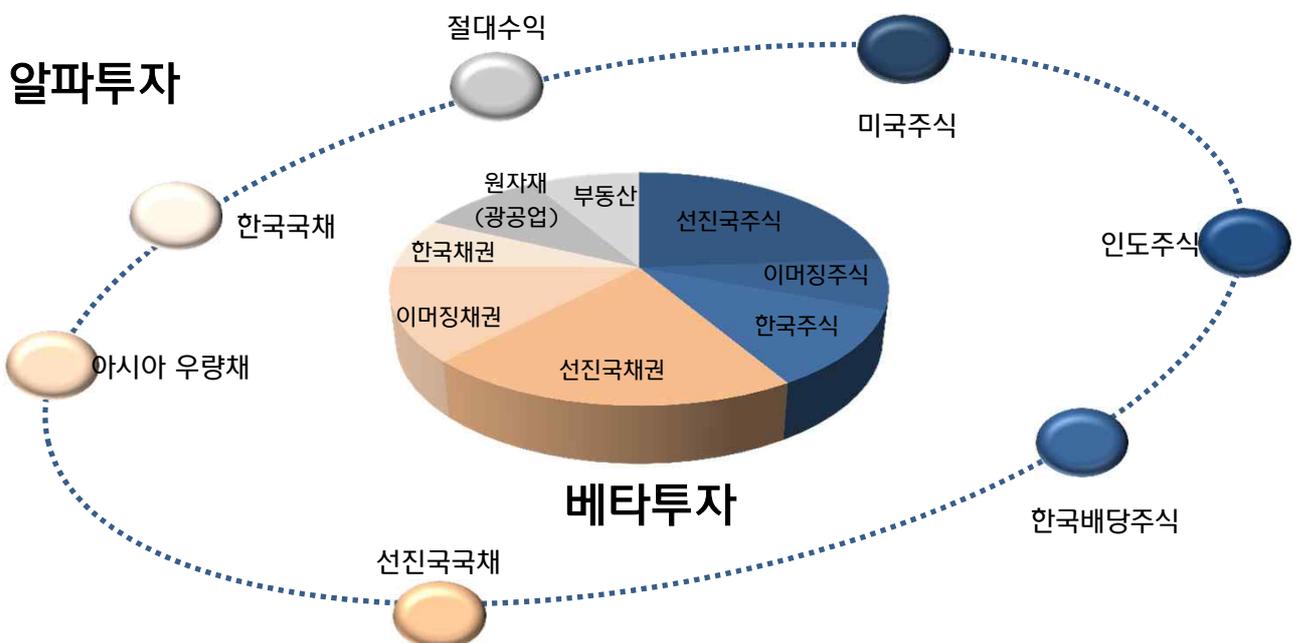
장기-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해 각 배분된 자산을 대표하는 펀드에 자산의 70%를 투자하고, 단기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의 30%는 가격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선별투자 다만, 단기투자시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손실 위험을 낮게 유지

2 자산배분안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베타투자전략**

글로벌 자산배분의 투자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자산 주요부분의 안정적 분산은 필수 핵심투자 자산에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는 일단 투자되면 큰 변화없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연 6%내외의 수익률과 함께 분산효과에 의한 안정성 보유

3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알파투자전략**

자산배분에 의한 연6% 수익은 시중금리(2%)의 3배에 이르지만, 투자수익으로는 불충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단기변화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알파투자 전략을 채용. 자산배분안의 범위내에서 투자우선순위 최상위 자산에 일부를 투자하여 연 2%의 추가수익 달성.



대우증권의 독자적 펀드 선정원칙에 의한 우수펀드 제시

- KDB대우증권은 기본적인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의 모든 펀드를 대상으로 장기 성과에 기반한 펀드평가의 주요 3요소를 도입했습니다
- 향후 장기·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가 예상되는 펀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대우증권의 기준에 의해 각 자산별로 최종 선정된 펀드들은 동일 유형의 경쟁펀드에 비해 장·단기 수익률이 높으며,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방어력을 나타냅니다.

**기본요건
필터링**



**펀드성과평가
(3가지 정량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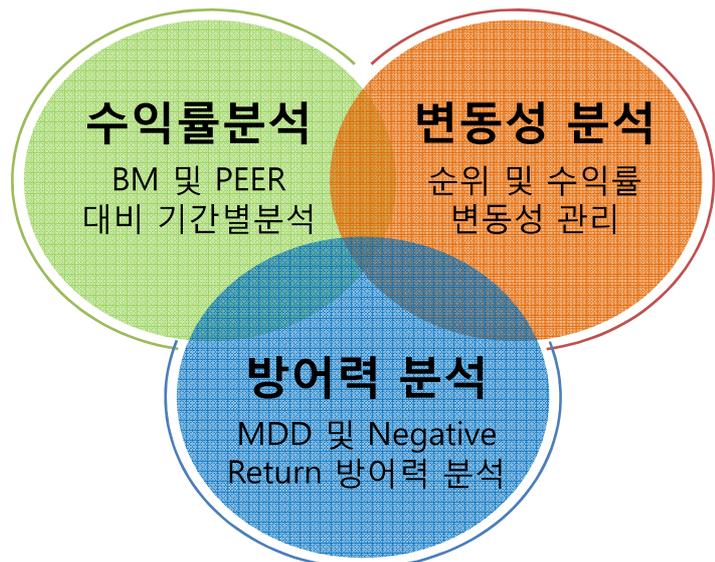
모니터링

펀드최소요건

- 운용규모 1천억이상, 운용기간 3년이상
- ※ 자금이 유입되는 상품위주로 검증

운용사요건

- 재무건전성, 준법성, 매니저Risk 필터링
- ※ 매니저의 교체빈도가 적고 윤리성에 초점



※ MDD(Maximum Draw Down) : 고정대비 최대하락폭

펀드성과 및 현황 모니터링

- 자산규모, 성과, 변동성, BM대비성과 등 모니터링

운용사 및 매니저 모니터링

- 운용사 실사 및 펀드 매니저 커뮤니케이션

최종 모델포트폴리오 편입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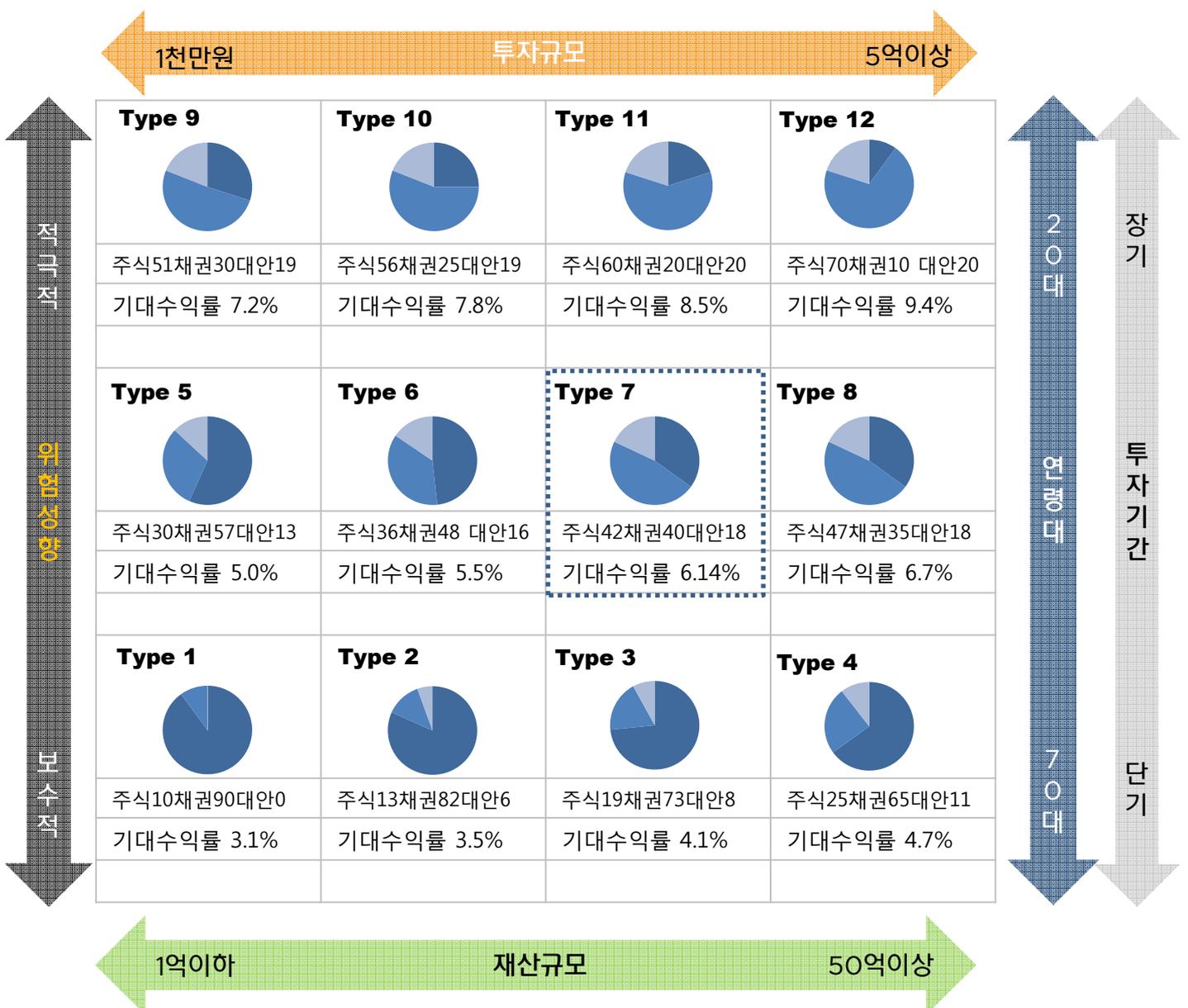
| 자산 | 베타 투자펀드 | | | 알파 투자펀드 | | |
|---------|---------|----------------|------|---------|--------------|------|
| | 구분1 | 펀드명 | 투자비중 | 구분2 | 펀드명 | 투자비중 |
| 주식 | 선진국 | 피델리티글로벌증권 | 17% | 미국 | KB스타미국S&P500 | 7% |
| | 이머징 | JP모간 이머징마켓증권 | 5% | 인도 | 미래에셋인디아 | 2% |
| | 한국 | 에셋플러스 코리아리치투게더 | 8% | 한국배당 | 한국밸류10년배당주식형 | 3% |
| 채권 | 선진국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 | 13% | 선진국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 | 5% |
| | 이머징 | 피델리티이머징마켓증권 | 9% | 이머징 | 블랙록아시아퀄리티 | 4% |
| | 한국 | 교보중단기우량채 | 6% | 국공채 | 프랭클린베스트국공채 | 3% |
| 대안 | 원자재 | 블랙록월드광업주 | 7% | 절대수익 | 프랭클린K2멀티전략 | 3% |
| | 인프라 | 하나UBS 글로벌인프라 | 5% | | 하나UBS 다이나믹알파 | 3% |
| 베타 투자비중 | | | 70% | 알파 투자비중 | | 30% |

[편입펀드 개요] 펀드 과거 성과 및 펀드유니버스의 내용은 첨부1 참고

| 자산 | 구분 | 펀드명 | 개요 |
|-------------|------------|--------------------------------|-------------------------------------|
| 주식 | 선진국 | 피델리티 글로벌증권 | 미국(약60%),유럽(약25%), 일본 등 선진국 위주로 투자 |
| | | KB미국S&P500 | 미국 S&P500 주가지수 선물과 추종 ETF에 투자 |
| | 이머징 | JP모간글로벌이머징 | 아시아 약55%, 동유럽 14%, 남미 12%, 아프리카 10% |
| | | 미래에셋인디아 |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종목 선별을 통해 인도주식 투자 |
| | 한국 |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 | 국내 일등기업에 선별투자 |
| 한국밸류10년배당주식 | | 국내 배당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에 선별투자 | |
| 채권 | 선진국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 | 선진국채권 중심으로 다양한 채권에 분산투자 |
| |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 | 미국 변동금리부 대출채권에 투자 |
| | 이머징 | 피델리티이머징마켓증권 | 이머징국채/회사채 200여개 채권에 분산투자 |
| | | 블랙록아시아퀄리티 | 아시아 우량기업의 달러채권에 투자(홍콩, 인도 등) |
| | 한국 | 교보중단기우량채 | 만기가 짧은 국내 우량회사채 투자(AA급이상) |
| 프랭클린베스트국공채 | | 국내 국공채 투자로 낮은 변동성, 안정적 이자수익 추구 | |
| 대안 | 원자재 인프라 | 블랙록월드광업주 | 전세계 광공업 관련 기업 주식에 분산투자 |
| | | 하나UBS 글로벌인프라 | 장기 고성장이 전망되는 전세계 인프라 섹터투자 |
| | 절대수익 | 프랭클린K2멀티전략 | 4개 운용전략을 기반으로 시장환경에 맞게 투자배분 |
| | | 하나UBS다이나믹알파(예정) | 멀티에셋 투자로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4.5% 초과수익 |

12 Type 맞춤형 모델포트폴리오

다섯 개의 축으로 12개 타입의 포트폴리오를 구분 [위험성향/투자규모/재산규모/연령대/투자기간]
 머니빌더(Money Builder)라는 Tool을 통해 자신의 최적 타입 포트폴리오를 선택가능
 대표성을 지닌 모델포트폴리오는 Type 7 (총자산 5억대, 투자규모 5천만원이상, 위험성향은 중립적,
 연령대는 40대, 투자기간은 3년정도가 적합).



MP 활용

① 포트폴리오 상담 및 PB형랩 활용

기본적으로 영업현장에서 글로벌 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를 고려하는 고객과 상담시 활용가능
예를들어 MP를 70%복제하고 나머지는 ELS나 개별채권, 주식 등으로 PB가 포트폴리오를 구성.

② WRAP이나 신탁으로 가입가능

현장에서 MP의 편입펀드가 많고 정기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 WRAP상품가입

③ 연금투자나 적립식 투자자의 경우 재간접 펀드로 투자

편입펀드들을 하나의 펀드에 편입하는 재간접구조로 만들. 연금 적립식투자 등에 활용가능



[첨부1] 펀드 유니버스

(단위: 억원, 원, %)

| 자산 | 구분1 | 구분2 | 펀드명 | 순자산 (억원) | 기준가 | 수익률 | | | 변동성 | |
|-------------|------|-----|-----------------|--------------|----------|----------|--------|--------|--------|-------|
| | | | | | | 6개월 | 1년 | 3년 | | |
| 주식 | 선진국 | 베타 | 피델리티글로벌증권 | 190 | 1,025.70 | 8.99 | 14.41 | 59.29 | 11.54 | |
| | | |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 | 432 | 1,653.71 | 11.39 | 15.51 | 66.83 | 10.90 | |
| | | | 미래그레이트컨슈머 | 5,803 | 1,107.75 | 8.46 | 6.53 | 53.83 | 12.72 | |
| | | 알파 | KB미국S&P500인덱스 | 715 | 1,115.18 | 9.12 | 18.16 | 72.11 | 12.39 | |
| | | | 슈로더유로증권 | 2,234 | 1,177.99 | 17.80 | 17.43 | 78.91 | 15.23 | |
| | | | 한화재팬코아 | 64 | 798.07 | 11.19 | 17.82 | 77.68 | 17.90 | |
| | 이머징 | 베타 | JP모간글로벌이머징 | 53 | 858.22 | 6.09 | 18.69 | 17.14 | 20.00 | |
| | | | 알리안츠글로벌이머징 | 158 | 1,021.51 | 5.71 | 12.72 | 11.37 | 10.48 | |
| | | | 신한그레이트이머징 | 656 | 908.61 | -2.39 | 6.47 | 0.77 | 12.15 | |
| | | 알파 | KB중국본토A주 | 1,045 | 1,434.95 | 32.16 | 30.57 | 67.81 | 15.95 | |
| | | | 미래인디아디스커버리 | 569 | 1,175.31 | 28.82 | 61.21 | 47.62 | 18.09 | |
| | | | KB브라질증권 | 144 | 679.01 | -24.41 | -9.08 | -32.96 | 29.43 | |
| | 한국 | 베타 | JP모간러시아증권 | 905 | 279.09 | -25.26 | -28.20 | -30.11 | 30.69 | |
| | | |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 | 7,092 | 1,185.36 | -1.12 | 14.45 | 34.48 | 9.79 | |
| | | | 트러스트제갈공명 | 4,277 | 1,059.03 | -3.74 | 7.64 | 28.15 | 9.29 | |
| | | 알파 | 이스트스프링코리아리더스 | 2,744 | 1,082.90 | 1.22 | 14.20 | 22.54 | 11.38 | |
| | | | 한국밸류10년투자배당 | 1,543 | 1,041.38 | 2.79 | 22.60 | - | 6.67 | |
| | | | KB밸류포커스 | 19,385 | 1,052.07 | 0.69 | 9.45 | 26.19 | 7.24 | |
| | 채권 | 선진국 | 알파 | 교보파워인덱스 | 20,687 | 988.31 | -4.55 | 0.36 | -0.20 | 11.26 |
| | | | | 미래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 | 4,240 | 1,044.66 | 1.82 | 6.12 | - | 1.63 |
| 알리안츠글로벌투자등급 | | | | 31 | 1,044.80 | 3.59 | 8.71 | 23.45 | 2.41 | |
| 이머징 | | 베타 | 프랭클린미국금리연동 | 1268 | 1011.46 | 0.02 | 1.43 | - | 3.15 | |
| | | | 피델리티이머징마켓 | 413 | 1,026.39 | 0.02 | 10.43 | 21.57 | 5.72 | |
| | | 알파 | 템플턴글로벌증권 | 540 | 1,010.50 | -3.63 | 2.07 | 6.59 | 4.40 | |
| | | | 블랙록아시아퀄리티 | 103 | 1027.02 | 3.93 | 10.20 | 21.04 | 3.05 | |
| 한국 | | 베타 | AB이머징마켓증권 | 27 | 970.98 | -2.53 | 5.89 | 11.00 | 5.79 | |
| | | | 교보약사중단기우량채 | 267 | 1,027.35 | 2.03 | 4.34 | - | 0.57 | |
| | | 알파 | 흥국멀티플레이4호 | 1,341 | 1,030.00 | 2.18 | 4.42 | 14.41 | 0.33 | |
| | | | 프랭클린베스트국공채 | 2,071 | 1,049.90 | 2.96 | 5.69 | 14.58 | 1.26 | |
| | | | 한화장기회사채 | 367 | 1,011.34 | 2.27 | 4.64 | 13.65 | 0.69 | |
| 대안 | | 원자재 | 베타 | 블랙록월드광업주 | 882 | 486.20 | -23.23 | -22.66 | -50.53 | 20.92 |
| | | | | 한화글로벌인프라MLP | 496 | 985.89 | -4.57 | 10.35 | - | 24.28 |
| | 부동산 | 알파 | 하나UBS글로벌인프라 | 493 | 1136.70 | 7.12 | 15.07 | 54.68 | 8.39 | |
| | | | JP모간글로벌부동산 | 144 | 1,120.11 | 9.82 | 19.84 | 41.87 | 9.30 | |
| | | | 프랭클린 K2 멀티전략 | 26 | 1,008.73 | 3.35 | 4.53 | - | 5.55 | |
| | 절대수익 | 알파 | 하나UBS다이나믹알파(예정) | - | - | 3.16 | 4.90 | 20.79 | 4.69 | |
| | | | KTB스마트시스템트레이딩 | 236 | 1034.15 | 1.19 | 10.14 | - | 3.99 | |

베타펀드

알파펀드

성과기준일: 2015년 2월 15일

[첨부2]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안

| 시나리오 | 판단기준 | 대응전략 |
|--------------------|--|---|
| KOSPI 급등락 | 지수 2150pt를 상회 (현기준 10%상승) | 당사의 KOSPI 예상밴드 상단인 2050을 100pt추가 상회한 상황이므로 수익발생분에 대해서 차익실현. (한국 주식 편입비 유지) |
| | 지수 1750pt를 하회 (현기준 -10%하락) | 당사는 올해 KOSPI밴드를 1750~2050으로 보고 있으며, 1750 하단을 하회할 경우, 한국주식 투자비중 증대할 계획. 현 투자비중 10%에서 점진적으로 저가매수를 통해 20%까지 확대할 계획. (채권 및 대안자산 축소) |
| 미국의 금리인상 | 美 정책금리를 0.5%이상 상향, 정책금리 0.75%이상, 10년물이 3% 초과 | 글로벌 자산시장 혼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 단기적으로 채권, 부동산가격의 하락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시장은 달러현금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 일시적으로 대부분의 자산이 급락하고 변동성이 커질 것이므로, 오히려 이를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 원자재, 부동산이나 인프라 자산은 비중축소(12%→0%) |
| | 美 정책금리 0.5%이내 상향, 정책금리 0.6%이내. 10년물 2.75%이하유지 | 당사가 예상한 수준의 변화이며, 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 현재의 포트폴리오 유지 할 계획 |
| 신흥국 또는 유럽리스크 | 신흥국, 특히 자원부국의 디폴트 리스크 점증 |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변경사항 없음 보유중인 이머징 펀드들의 자원부국 노출도가 낮음. 오히려 원자재 가격 급등락을 활용하여 원자재 등 트레이딩관점에서 비중 확대 고려 |
| | 유럽 디플레이션 리스크 노출. 그리스 Grexit | 현재 유럽주식에 대한 비중이 낮은 상황이므로 오히려 유럽주식 급락시 저가 매수 기회활용 |